

<http://dx.doi.org/10.17703/JCCT.2022.8.4.143>

JCCT 2022-7-19

체험 이야기하기의 구술적 특성에 대하여

A Study on the Oral Characteristics in Personal Narrative Storytelling

김경섭*

Kyung-Seop Kim*

요약 현대 이야기 현장에 살아 숨 쉬는 언어 민속은 옛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개인서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서사는 구비문학 내의 여러 장르들처럼 창조와 충동으로부터 발생하기보다는 전달과 재창조의 충동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전통적인 옛이야기에 비해 개인서사와 같은 체험에 대한 이야기의 경우 구연을 담당하는 이야기 화자 개인의 성향이 더해져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체험을 어렵잡아 재단하고, 추억을 주먹구구식으로 재해석’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구비문학을 구비문학이게끔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문제는 구연 현장에서 필연적으로 포착되는 이러한 유의미한 요소들을 어떻게 다룰지이다. 본 논문의 주요 방법론인 텍스트 언어학은 이러한 구비문학의 즉흥적인 요소들을 포착해 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개인서사에 대한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은 현장의 분위기, 화자의 실수, 이야기 내용의 모순, 청중의 반응 등 그동안 구비문학 연구에서 다루기 힘들었던 구술적 특성들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논의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말’이라는 일회성, ‘어림셈’이라는 현장성, ‘대중의 지혜’라는 적층성을 기반으로 하는 구비문학의 구술시학을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나아가 공동체 문화에서 개개인의 언어 예술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체험 이야기하기 연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개인서사, 구술성, 언어 민속, 구비문학, 텍스트 언어학, 구술시학, 공동체 문화, 언어 예술

Abstract The folk language that lives and breathes in modern works does not just come from old stories, but it is a personal narrative which is based on the experiences of the narrator. Like many genres in oral literature, most of these personal narratives occur from the impulse of communicating and reinventing rather than from the impulse of creating. Compared to traditional folktales, stories about an individual's experiences, such as personal narratives are often performed by adding the individual tendencies of the narrator. In so doing, the phenomenon of "processing the experience by estimating it and reinterpreting the memories roughly " occurs, and this is a significant factor in making the oral literature. However, the question that arises here is: How can we deal with these significant elements that are inevitably captured when performed orally? Text linguistics, the main methodology of this paper, implies the possibility of expressing the impromptu elements of oral literature. Also, textual linguistic analysis of personal narratives provides the possibility of discussing oral characteristics from various angles which have been difficult to analyze, such as on-site atmosphere, speaker mistakes, contradictions in stories, and audience reactions. Hence, it is possible to effectively discuss oral-poetics in oral literature which are based on the one-off of 'words', the 'roughness' of the on-site atmosphere, and the stackability of the 'wisdom of crowds'.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tudy of personal narrative storytelling that plays an important part in Verbal art in community culture.

Key words : Personal Narrative, Orality, Oral Folklore, Oral Literature, Text Linguistics, Oral Poetics, Community Culture. Verbal Art

*종신회원, 을지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주저자)
접수일: 2022년 5월 26일, 수정완료일: 2022년 7월 5일
게재확정일: 2022년 7월 10일

Received: May 26, 2022 / Revised: June 5, 2022
Accepted: July 10, 2022
*Corresponding Author: kksgmtt@eulji.ac.kr
Dept. of Liberal Arts, Eulji Univ, Korea

1. 서론

문학의 소역사를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여 단 일만년이라 볼 때에도 기술(記述)문학의 역사는 구술(口述)문학의 그것에 비해 일천한 역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술문학의 그 일천한 역사로 구비문학의 장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 내재된 심층적 요소들을 깨끗하게 털어낼 수 있었으리라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문자성은 그 선행자인 구술성을 소멸시킴으로써 구술성이라는 선행자가 있었다는 기억조차 파괴해 버린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시대에 구술성을 재건시키고, 구술성의 매력을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문자성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 구술성과 기술성이란 표현수단에 의한 구분이 아니므로 글에도 구술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말에도 기술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구술성 일반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구술공식구 이론 *oral-formulaic theory*’을 제창한 로드A. Lord와 패리 M. Parry를 거론해야 한다. 패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문학은 두 개의 큰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는 두 종류의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두 종류의 형태가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의 부분이 구술이고 다른 하나가 기술이다”. 그는 특히 기술 서사의 종속적 형태에 미친 구술 서사시의 영향을 강조하면서, 구술적으로 지어진 그리스와 서유럽의 고대 서사안에서 구술시의 작법에 관한 일반성을 밝히고자 하였다.[1]

구술성의 특징을 밝히고자한 이런 논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른바 구술시학 *Oral Poetic*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시학(詩學)이란 문학 적 담화의 창작과 소통에서 발견되는 그 형식적 특징들을 명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논의하는 구술시학이란 입으로 구연되는 이야기에 나타나는 구조적, 형식적 지표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술시학은 말로하는 이야기 연행에 나타나는 특유의 형식적 지표와 결속 강화의 구조들을 의미한다.

로드와 패리가 발전시킨 구술공식구 이론이 기본적으로 구술적 담론에 기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기술(記述) 문학에서의 구술 공식구 발견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런 구술적 유산들이 기술 문화에 유입된 것을 포착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기술 서사물의 구술적 흔적은 이미 구술과 기술을 나누는 표지가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文’을 형성하는 의사소통의 기법으로 간주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술성과 기술성의 연구에 있어서 양자가 어떻게 변별되는가를 살펴보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양자는 당연히 변별되는 것이고, 그것들의 혼합의 양상을 구명하는 것이 연구의 본령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구술성과 기술성에 대한 연구는 그 둘을 가르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 또는 둘의 변별성을 가지고 다른 문학 양식을 살펴보는 것과 같은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런 연구는 허망한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구술성과 기술성은 그 밑바닥에 엄청난 철학적·인식론적 차별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구술성과 기술성을 변별하는 작업이 비교적 수월할지라도 그 구별이 도출시키는 문화적 파장은 엄청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문자가 발명되고 시간이 지나 문맹률까지도 현저하게 떨어진 산업사회에서의 구술·기술의 변별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할 정도이다. 이는 구술성이 그 본질을 상실했다는 의미가 아니며 사실 지금은 구술성과 기술성을 구별하여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구술성과 기술성이 혼재된 현대의 이야기 문화는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가. 현대의 이야기판에서 주로 구연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이 본고의 주요 논의 지점이다.

구비문학은 과거지학으로서의 의의 못지않게 현재지학으로서의 의의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장에서 활발하게 연행되고 전승되고 있는 구술담화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이 절실한 실정이다. 구비문학의 현재성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행위이며, 체험 이야기의 발화적 특징이 본고의 주요 분석 대상이다. 아울러 다양하게 생산되는 구술담화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그간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효과적으로 논의하는 데에는 인접학문의 성과들이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소극적이고 구심적인 구비문학 연구에서 적극적이고 원심적인 구비문학 연구로의 가능성을 타진함으로써, 구비문학을 학제적이고 융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II. 체험 이야기하기로서의 개인서사

설화 연구자들에게는 지금 시대에도 활발하게 살아 있는 구비문학의 실체가 과연 존재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 구비문학에 있어서 신화나 전설, 그리고 민담은 이전시대의 산물이며, 지금의 시점에서는 고정되고 고착된 것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현시대에서의 위치가 매우 협소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구비문학의 영역에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개인서사(personal narrative)’를 구비문학의 영역에 끌어 들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개인서사는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연구자들에게 오래 동안 연구의 주제로 간주되지 못했다.[2] 그 동안 구비문학 연구는 기본적으로 ‘허구적으로 꾸며진 이야기’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비문학의 영역에 설화 이외의 문학적 이야기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의문시될 수 있겠는데, ‘경험담’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개인서사담은 실제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풍부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구연자에 의해 설화 못지 않은 선호도를 보이는 부분이다.

개인서사담은 대개 이야기 화자의 수명을 훨씬 넘어서 지속되지 않는다. 개인서사담은 가족이나 친밀한 벗들의 레파토리에 잠시 들어가 있다가 서서히 사라진다. 그런 이유는 개인서사담이 개인의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된 서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보통 1인칭으로 말해지며 그 내용은 비전승적이다. 개인서사담의 비전승적 특징 때문에 그것이 민속 일반 장르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플롯이나 모티프 조차 확증시킬 수 없는 이 민속 장르 속에 반영된 가치나 태도들은 문화적으로 공유되어지고 전승되는 것으로 주장되기도 한다. 또 민속적인 것은 반드시 전승적이어야 한다는 명제는 ‘민속은 반드시 이리해야 한다’는 식으로 민속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낳게 하며, 민속은 반드시 과거의 것이어야만 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져다 줄 뿐이다. 그러므로 개인서사담은 지금 시대에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민속일 수 있다.

개인이 체험을 이야기하는 ‘개인서사’에 대한 용어 정리도 필요하다. ‘일상경험담’이나 ‘경험담’이라는 용어는 경험이라는 측면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이 민속 장르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측면을 간과하는 약점이 있는 용어이다. 이들 역시 일개인이 펼쳐내는 서사임에 틀림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험’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용어는 문제가 있다. 자신이 경험했다는 측면에서, 1인칭이며 사적인 이야기라는 측면이 잘 표현될 수 있는 ‘사적 서사’나 ‘개인 서사’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 듯하다. 본고는 이런 류의 용어 중에서 그것이 하나의 서사로서 완결된 형식 띠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개인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한 가지 더 거론해야 하는 것은 개인서사담의 문학성 문제이다. 허구와 상상이 문학의 기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이지만, 문학에서의 허구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 내용이 사실에 기초한 것인가 상상으로 꾸며낸 것인가 하는 것은 소재차원의 문제이지 문학성의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리차드 바우만은 구비문학의 민족지학을 언급하면서 ‘단지 거짓말일 뿐인’ 것으로 판명된 것이나 ‘화자와 청자간에 진실로 동의된 것’이나 동일한 무게를 지닌 언어 예술(Verbal Art)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 그러므로 개인 서사담도 신화나 민담과 더불어 설화 연구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허구를 문학성의 근간으로 삼으려는 일종의 강박으로 인해, 근대 이후 소설중심으로 형성된 허구위주의 문학성에 대한 과도한 경사가 구비문학에서의 개인서사담을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 신화나 전설 못지않게 체험 이야기에 해당하는 개인서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설화가 현격히 퇴조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면서 구비문학의 맥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적인 구술 담론이 오늘날에도 연행되며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에, 이것을 어떻게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명하여 유효한 논의를 도출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인 셈이다. 아울러 개개인이 일상적으로 행하게 되는 경험 이야기를 하나의 ‘언어 예술’로 간주함으로써 공동체 문화 내에서 일반인들도 자신들의 언어로 이른바 예술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III. 개인서사에 대한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의 필요성

언어 이론과 문학 연구를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된다. 즉 언어학의 테이터로서 문학작품을 다루는 문제와 문학 연구에 있어 언어학을 도구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두 부분의 관련성은 그 중요성만큼 부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마치 우리 뇌의 좌반구와 우반구와 같이 양분된 기능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인문학은 그러한 차원에서 양분되어서는 안된다. 다행히 언어의 형식적 모델과 언어의 예술적 사용간의 '간격'은 그렇게 완벽한 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1970년대에 와서 서구 언어학자들은 확장된 텍스트의 실체에 대한 분석에 관심을 증폭시키기 시작하는데, 주로 단편 산문이나 서사체의 의미를 연구하는 새로운 시도였다. 예를 들자면 비슷하게 일치하는 서사들에 대한 연구나, 자연적인 담론의 본질에 대한 연구, 서사의 창조적 전달이나 회상·기억·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연구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들 중 최근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는 서사체의 모형을 위해 보다 정확하고 분석적인 연구의 방법론적 모델들을 제시하기도 한다.[4]

텍스트 언어학은 그 주요 관심사나 연구범위, 연구방법이 종래 언어학과 판이한 성격을 지닌다. 언어의 최소단위를 분류하거나 '문장'의 통사규칙을 가려내는 등 언어의 정적인 체계와 구조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인간이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연언어의 구성체, 즉 '텍스트' 구성의 문제에 대한 과학이다.[5] 따라서 텍스트 언어학은 일련의 문장연쇄로서의 텍스트가 아닌, 하나의 통합적, 유기적 총체로서의 텍스트성을 밝히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평가된다.

텍스트 언어학은 고전적 '수사학'에서 시작되어 '텍스트 문법' 단계를 거쳐 텍스트성 및 텍스트 산출과 수용을 다루는 '텍스트 언어학'으로 발전했고 결국은 언어와 관련된 이성적 인간 행위의 모든 측면을 종합해 다루고자 하는 '텍스트성 언어학'을 지향하고 있다. 텍스트 언어학은 궁극적으로 '텍스트' 여부를 판정하는 '텍스트성'의 기준들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이들은 곧 결속구조·결속성·의도성·수용성·상황성·정보성·상호텍스트성 등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1. 텍스트 언어학의 주요 개념
Table 1. The Main Concept of Text Linguistics

- ① 문법적 의존 관계인 '결속구조' *cohesion*
- ② 의미의 일관성 및 개념적 관계인 '결속성' *coherence*
- ③ 화자와 청자의 의도와 기획, 그리고 이를 위해 조정되는 태도의 '의도성' *intentionality*

- ④ 컨텍스트와 해당 장면에 대한 적절성을 말해주는 '수용성' *acceptability-relevance*
- ⑤ 신규 정보의 흐름으로 엮여지며 기대의 지평과 관련되는 텍스트의 '정보성' *informativity*
- ⑥ 텍스트가 일어나는 '상황 및 장면성' *situationality*
- ⑦ 기존의 여타 텍스트를 전제로 하거나 이에 의존하는 '상호텍스트성' *intertextuality*

결국 텍스트 언어학적으로 하나의 이야기(텍스트)란 작가의 의도가(의도성) 통합적 결속구조를 통해(결속구조) 하나의 기호작용을 수행하며(결속성) 최대의 의미용량을 누리면서(정보성) 전통과의 유대 속에서(상호텍스트성) 의미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인 '결속구조'는 텍스트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통사구조를 의미한다. 결속구조는 우리가 보고 듣는 실제 단어들에 하나의 연속속에서 상호관련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본고에서 검토할 개인 서사의 구술성 역시 결속구조의 측면에서 검토된다. 따라서 텍스트의 결속구조를 점검할 때는 구와 절, 그리고 문장이 조립되는 방식과 상호간에 맺게 되는 의존관계를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주제나 화제를 중심으로 내용의 일관성과 의미의 지속성에 관련된 결속성과 구별된다. 담화의 결속구조는 텍스트의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여러 미시적인 개념들을 포함하게 되며, 회기성(廻起性) 구문 *recurrence*, 병행(並行)구문 *parallelism*, 환언(換言) *paraphrase*과 텍스트가 간결성을 기해주는 대용형(代用形)과 생략 작용 등의 개념들 그것이다.

IV. 개인서사의 구술적 특성 분석

구술 텍스트는 연행 현장에서 화자와 청중의 다양한 의사소통의 산물이다. 이야기 연행에 대한 분석에서 논자의 주관적 해석을 중시하는 방법론에서 벗어나, 구술 텍스트를 담화의 산물로 인식하고 화자와 청자가 텍스트에서 어떤 의미망을 중심으로 관련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본고는 앞서 제기한 대로 텍스트 언어학의 성과를 적극 수용한다. 아래 제시하는 이야기는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구술한 전형적인 개인서사이다 (문장의 번호는 편의상 붙인 것임).

표 2. 개인서사 1
Table 2. Personal Narrative 1

1)내가 태어났을 땐 조선이랬지. 2)조선이었는데, 3)우리가 꽤 커서 대여섯살 됐을 끼야. 4)그때 일본놈이 나라를 잡아 먹었지. 5)어려서 그때 일은 잘 모르지, 뭐. 6)일본 사람들 많았죠. 7)그때는 일본놈들이 주권 잡고 있었는데요. 8)뭐. 저희들 좋은 거 다했지요. 9)우리아버지는 내 두 살 먹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잘 모르오. 10)이름이야 알지. 11)내가 어렸으니 잘 알지도 못하는데 송 성방씨라구 불러. 12)아버지 몇살에 죽었는지도 잘 몰라요. 13)마흔하내이에 돌아가셨다던가. 14)어머니는 오래 살았어요. 15)한 칠십 태서 돌아가셨을끼래요. 16)어머니 기일은 모르지요. 17)죽은 것도 낭중에 알았으니까. 18)아버지 제삿날은 알아요. 19)선달 스무닷살날이래요. 20)그 양반 돌아가세 가지고는, 21)이 흥천 여그 와서 돌아가셨는데, 22)내가 다시 밀리 장사를 지냈잖우? 23)아무데다 파 묻어 논 걸 내가 열살인가 먹어서 가서 다시 묻어 장사 지냈어요. 24)그러니 외삼춘이 갖다가 파묻어 놓고 왔으니 외삼춘이 묻은 데를 알았지요. 25)그때 그 양반하구 가 가지고 밀리 장사 다시 지냈어요. 26)가다가 오다가 객지에서 죽었다 이래 기별이 오니, 27)내가 어리니 누가 갈 사람이 있소? 28)형님도 나서서 어디 돌아댕기다가 중국 가 빠리고 말았으니 29)어디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구. 30)그러니 외삼춘이 가 파 묻구, 31)열살쯤 되니 가보자 그려셨지요. 32)산소가 이 흥천 대월 이래는 데래요. 33)그 뒤로 안 가 봤어요. 34)그래도 산소 있는 데는 알아요. 35)지끔도 찾아가면 가지요, 뭐 36)남 못 볼 병에 죽었어요. 37)그때는 엠병이라구 그랬잖았소. 38)그런 병에 돌아가셨어요. 39)저 흥천 나들이 갖다가 오다가선 제일 거름에서 죽었는데 40)마흔하내인지 둘인지 그래요, 41)아버지 나이가. 42)“문옥이” 그기 내가 나가지고 이름이래요. 43)아버지가 짓긴 지었겠쥬. 44)형님이 하나있었는데 45)중국으로 들어가구는 그만 다시는 우리 만나지 못하구 말았어요. 46)내 세 살 먹어 들어가셨는데 그 후론 모르지요. 47)중간에 형제가 있었겠지만 맨 잃어 버리고, 48)누님이 또 하나 있었었쥬. 49)내가 한 열두어살 먹어서 돌아가셨는데 50)아매 그때 사십 지냈을 거요. 51)나이 차가 나구 말구 하지요. 52)내가 맨 끄트마린데요, 뭐. 53)그 새간에 우리 누님이 한분 있고 해서 서이지마는 54)내가 맨 끄트마리니깐두루 55)중간에 잃어 버린기 많았겠지요, 뭐.

- 뿌리깊은나무 민중 자서전 13, 아우라지 뱃사공 송문옥의 한 평생, 뿌리깊은나무, 1992, 20쪽.

위 개인서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속구조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그 자체로는 특별한 의미없이 경제적이고 짧은 단어로서, 표층 텍스트에서 보다 명확한 내용을 활성화 하는 표현인 대용형 *pro-form*이 사용된다는 점이다. 4), 5), 7), 20), 21), 37), 42), 50) 등에서 보이는 ‘그때’, ‘뭐’, ‘그’, ‘이’ 등이 대용형이다. 물론 대명사의 형태만이 대용형인 것은 아니다. 이들 대용형을 사용함으로써 화자는 모든 것을 다시 언급하지 않고서도 그 내용을 진행 중인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기술(記述) 문학적 전통에서는 세련되지 못한 문장으로 가급적 피하는 표현들로서, 현장에서 구연되는 이야기 연행만의 특징이라 할 만하다.

이처럼 대용형의 사용은 기술텍스트에서 보다 구술 텍스트에서 훨씬 많이 나타난다. <가>에서 사용된 대용형은 모두 전조응 *anaphora*의 예인데, 전조응은 지시 내용 다음에 대용형을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가장 보편적이다. 왜냐하면 구술되고 있는 상황 중인 내용이 미리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는 개인서사 나아가서는 구비문학의 결속구조상의 한 특징이다.

둘째, 단어나 구와 같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회기 *recurrence* 현상이 두드러진다. 1)과 2)의 ‘조선’, 4)·6)·7)의 ‘일본놈(사람)’, 9)·12)·18)·41)·43)의 ‘아버지’(‘어머니’도 3번 나타남), 9)·13)·15)·20)·22)·38)·49)의 ‘돌아가시다’ (비슷한 의미인 ‘죽다’도 4번 나타남), 22)·24)·25)의 ‘장사葬事’ 등이 눈에 띄는 어휘적 회기의 모습이다. 부가적으로 ‘병’이 3번, ‘외삼춘’이 3번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화자가 말하려는 이야기의 배경과 내용이다. 즉 ‘조선’과 ‘일본놈’이라는 어휘는 시대 상황을 ‘아버지’, ‘돌아가시다’, ‘장사’ 등의 어휘는 중심 내용을 짐작케 한다. 그만큼 이 개인서사의 내용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술(記述) 문학이 주로 주제를 중심 모티프로 드러내는 데 반해, 구술 연행은 이런 형식적 표지들로부터 주제를 암시하고자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유사한 구절의 회기로서는 7)·35)·55)의 ‘~요, 뭐.’와 22)·24)·25)의 ‘장사 지내다’, 52)·54)의 ‘내가 맨 끄트마리’가 눈에 띈다. 이와 같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나 구절들이 반복됨으로써 이 개인서사의 결속구조는

강화되고 있다.

셋째,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표현을 달리 하는 환언(paraphrase)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4)와 7)은 동일한 내용을 달리 표현한 환언이라 할 수 있으며, 17)은 16)의 환언이고, 23)과 25)는 22)의 환언이며, 55)는 47)의 환언이다. 또 28)~29)와 44)~46)도 서로 환언 관계에 있다. 이런 것들은 한 번만 말해도 될 것을 다시 한번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환언 역시 개인서사의 결속 구조를 강화시키는 요소인 것이다.

넷째, 하나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되 그 구조에 새로운 구성요소를 넣어 사용하는 병행구문(parallelism)을 사용하고 있다. 14)·15)의 ‘어머니는 오래 살았어요. 한 칠십 돼서 돌아가셨을 끼래요’와 18)·19)의 ‘아버지 제 샷날은 알아요. 선달 스무닷새날이래요’가 대표적인 병행구문이다. 이 개인서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배적인 병행구문은 ‘내가 몇 살 때(몇살에) 누가 죽다’의 문장 구조이다. 9)·15)·40)등의 병행구문으로 결속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병행구문은 특정 이야기 연행에서 구연자가 선호하는 문장 구조를 청자에게 반복시킴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화자의 발화에 대한 이해도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논의할 수 있다.

이제 또 다른 개인서사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표 3. 개인서사 2
Table 3. Personal Narrative 2

(제보자의 친구 중 김흥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놀기 좋아하고 달리기를 잘했다고 한다)

1)이 사람이 그래서 몇번 상을 타고 어찌고 하더마는 2)운동 좀 한다는 것이 여자를 좋아하면서 술을 잘 먹데. 3)술을 한참 먹다 했는디, 4)한번 자기가 읍에 볼일 보러 갔다가 5)친구랑 만나 술을 먹었다가 6)술이 얼마나 만취가 되었는가는 모르지만 7)장예를 갔다가 오다가 집으로 온다고 왔는디 8)제원...9)여기 제원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지만, 10)요기 나가는 데 있다고, 11)면사무소 그 동네에. 12)거기가 군부대로 가는 길이었어. 13)지금 한국타이어 거기가 공동묘지 자리야. 14)제원들이니까. 15)집으로 온다고 그랬는데. 16)고 앞예를 딱 오니까. 17)워편 예쁜장한 아가씨가 길을 안내하면서 18)“이리 따라오세요. 왜 그리 가십니까? 이리오시오.” 19)하면서 안내를 하더라는 얘기에. 20)안내를 하기 때문에 자기는 길이 이리해서 이리 와야 할 참인디, 21)이 반대 방향으로 저 금복 윗동네루 자꾸 데려가는데 22)모르고 그 사람은 따라가능거여. 23)그러면

정말로 그 여자가 나와서 안내를 해가지고 따라갔는가는 모르겠는디. 24)그 이튿날 난리를 폄다고 하고서는 25)저녁때 가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26)그 도깨비 얘기를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 27)제원까지 이렇게 나와 가지고서 집으로 올라가는데, 28)누가 떡 나서는 것을 보니까, 29)예쁜 색신디... 30)그때 말로는 큰애기라고 해. 31)큰 애긴디, 32)아 이거 와 그렇게 가냐고 하면서 33)“나를 따라오세요” 해서 불러서 왔다고 하는 것이 34)가서 쓰러져서 넘어지고 얼마나 있다가 깨서 들어보니까, 35)그 장소가 어딘고 하니, 36)여기서부터 거기가 한 4킬로 될꺼여. 37)한 3킬로는 조금 넘고. 38)한국타이어 지금 창고 많이 만들어 놓고 모퉁어리 고기여. 39)거기가 공동묘지, 40)금복으로 들어가는 공동묘진디. 41)거까지 가서 42)거 가서 사람이 쓰러져 있어. 43)그야말로 그것은 도깨비 아니여? 44)도깨비들도 여자만 있는개벼. 45)그렇게 데려가드라, 46)하하하. 47)그 이튿날 식전에 가서 식구들이 어디에 있던 것을 보니까, 48)거기서 끽고적 내려오더라구. 49)“어디 갔다 오냐니까.” 하면서 데리고 왔어. 50)집에 와서는 뺨었어. 51)밥도 안 먹고. 52)“어디 갔다 오냐.” 하니, 53)“야 이상하다야.” 54)그 얘기를 하능거야. 55)지금 내가 한 얘기를 56)그래 거기까지 갔다 얘기에. 57)당치도 않은 소리여. 58)거기가 여기하고도 4킬로 어름 될꺼여. 59)돌아가니까. 60)거기 가서 있다가, 61)자다가, 62)식전에 왔다는 얘기에. 63)그런 사실이 있어요.

- 도깨비에 홀린 친구, 구비문학연구 제4집, 한국구비문학회, 1997, 562~563쪽

이 이야기는 자신이 겪은 일은 아니지만 친구의 경험을 화자가 1인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개인서사에 해당한다.

먼저 대용형을 살펴보면 여러 군데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개인서사담에서는 대용형 가운데 특수한 경우인 후조응(cataphora)을 발견할 수 있다. 후조응은 지시 내용이 먼저 제시되고 대용형이 후에 나타나는 경우이다. 54)와 55)를 살펴보면 ‘그 얘기를 하능거야. 지금 내가 한 얘기를’에서 ‘그’는 ‘내가 한 얘기’에 대한 후조응이다. 후조응은 대용형가운데 전조응에 비해 매우 특수한 경우로 효과적으로 구사될 경우 구술상황에서 상당히 역동적인 효과를 지닌다. 즉 후조응은 구술상황에서 일시적인 문제를 야기시켜 청자로 하여금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둘째, 회기 현상을 찾아보면 먼저 어휘의 회기는 3)·5)·6)에서 ‘술’, 17)·19)·20)·23)에서 ‘안내’ 2)·6)·43)·44)의 ‘도깨비’, 8)·9)·13)·14)·27)·39)·40)의 ‘제원 혹은 공동묘지’ 등을 찾을 수 있다. 구절 회기는 ‘~했는디’로 대표되는 표현인데 2)·3)·7)·15)·20)·27)·31)·40) 등에서 보인다. 이런 어휘들은 텍스트 속에서 중요도가 있는 것인 만큼 이것들로부터 이 개인서사의 핵심적인 스토리가 재구될 수 있는 것이다.

회기 현상을 통해 살펴본 바로는 이 개인서사가 ‘무엇을 하고자 했는데 술 때문에 도깨비의 안내를 받아 공동묘지로 간’ 이야기를 형성하는 결속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셋째, 같은 내용을 표현만 달리 하는 환언은 5)가 3)의 환언이며, 19)는 18)의, 18)은 17)의 환언이다. 또, 30)과 31)은 29)의 환언이고 37)은 36)의 환언이며, 6)~22)의 내용은 27)~38)에서 환언되고 있다. 구술 의사소통에서 흔히 보이는 이런 환언은 앞뒤로 이어지면서 말해지는 대상에 초점을 집중시키고, 대상을 강조하면서 화자의 구연적 호흡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 이 개인서사에서는 동일한 문장구조를 반복되 그 구조에 새로운 구성요소를 대치하는 병행구문이 하나로 통일되어 나타난다. 그것은 ‘~한다고 했는데 ~하게 되었고’하는 식의 문장구조인데, 3)~6), 7)~10), 15)~17), 20)~22), 27)~30)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역시 개인서사 텍스트의 결속구조를 강화하는 작용을 한다.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구술 발화의 특성을 어절의 도치라든지 문장성분의 생략 같은 현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야기 연행의 구술성을 결정하는 가장 큰 조건은 화자와 청자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하며 의사소통에 참가한다는 사실이다. 이야기 연행의 이런 배경은 어절이나 문장들 간의 결속구조 같은 세밀한 부분에까지 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기술(記述) 텍스트에서는 지나친 회기현상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구술 텍스트인 개인서사는 오히려 회기법을 선호한다. 또 지나치리만큼 대용형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발화의 경제성을 살리는 것 또한 기술 텍스트와는 매우 다른 이야기 연행으로서의 개인서사를 변별할 수 있는 지점이다.

V. 고찰 및 결론

구술문화에서는 잘 생각해서 말로 표현한 사고를 기억해 두고 그것을 재현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로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억하기 쉬운 형태에 입각하여 사고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6]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사고는 기억 체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으며, 기억의 필요성이 통사구문까지 결정하기에 이르른다.

말은 일회적이라 뺏는 순간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발화의 맥락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전에 내 뺏은 말을 계속해서 발화 표면에 띄울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휘나 구절의 회기는 구술성의 일회성과 순간성을 보완하려는 필요에 의해 생겨난 발화 양식으로 보인다.

이것은 구술성의 특징이 종속적이라기보다는 첨가적이라고 주장한 웅 신부의 언급과도 관련된다. 앞에서 말한 것을 되풀이 하거나 풀어서 말하는 것은 화자나 청자 양쪽을 이야기의 본 줄거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매어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화자는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다음에 무엇을 말해야 할까를 신경써야 하는데, 그러한 생각을 위해 사이를 두는 것이 간혹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머뭇거리지는 것은 곧 청자의 집중과 관심을 떨어뜨리게 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계속해서 말할 것을 찾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되풀이하는 편이 낫다. 이와 같이 개인서사담의 내용이 자꾸 이전 발화로 회기했다가 다시 진행되곤 하는 것은 발화의 일회성과 즉흥성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환언은 하나의 대상을 하나의 시각이나 초점에서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시각이나 초점에서 서술하는 것이다. 문자 문화에 입각한 기술 텍스트에서는 내용의 중언 부언이 부정적이지만 개인서사와 같이 현장에서 이야기를 연행하는 구술 텍스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청자가 항상 눈앞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구두 발화자에게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청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다.

환언은 구술성의 일회성이나 즉흥성과도 관계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그것은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발화 방식이다. 하나의 대상에 대해 충분히 말하면서 화제를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청자의 이해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구비문학 텍스트가 장황하거나 다변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화자가 이야기를 구연할 때 일정한 지배적 통사구조를 설정한 뒤, 그것을 반복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 진행상의 크나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즉 이야기를 표현해 내는 형식적인 면의 노력이 경감됨으로써 동일한 통사 구조에 다른 차원의 정보를 계속해서 첨가하여 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의사소통상에서 화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따라서 이야기 연행에서 동일한 표현형식에 다른 의미 내용을 담아 표현하는 병행구문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 판소리와 같이 가창이 병행되는 연행은 가창이 병행되지 않는 이야기 연행과는 달리 텍스트 언어학적 요소들이 병행구문이라는 정형화된 틀 내에서 혼재되어 있다. 이것은 노래의 가락에 가사가 얽매어 있을 수밖에 없는 巫歌의 연행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노래 연행에서는 음악적인 구성에 발맞추기 위해 현장 상황에 맞게 운율이 정형화되고, 그런 틀 내에서 회기나 환언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상에서 전개한 개인서사에 대한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으로 현장의 분위기, 이야기 화자의 의도, 이야기의 미시적인 구조화, 청중에 대한 화자의 태도 등을 얼마간 논의할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구비문학 연구에서 다루기 힘들었던 요소들에 대해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인접 학분의 성과를 원용해 살펴 볼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현대의 공동체 문화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전설이나 민담과 같은 전통적인 옛날이야기가 구연되는 현장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전통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허구적 옛이야기가 현격하게 퇴조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이야기 문화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개인서사’라 할 수 있다.

본 논의는 현재의 이야기 문화를 지탱하고 있는 체험 이야기하기(개인서사)의 구연적 특징을 논의함으로써 과거의 구비문학이 아닌 현재의 구비문학을 논의할 단초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구체적인 구연 상황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를 통해 이야기 행위에서 발견되는 구술적 특징들을 학술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통해 향후 사실적 담화, 이야기 문화, 구술 연행 등의 연구에 단초를 제공하여 공동체의 이야기 문화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References

- [1] Robert Scholes & Robert Kellogg, *The Nature of Narrative*, Oxford Univ. Press, p. 17, 1966.
- [2] Sandra Dolby Stahl, *Literary Folkloristics and Personal Narrative*, Indiana Univ. Press, p. 12, 1989.
- [3] Richard Bauman, *Story · Performance and Event :Contextual studies of oral narrative*, Cambridge Univ. Press, p. 9-11, 1986.
- [4] Anna-Leena Siikala, *Interpreting Oral Narrative*, FFCcommunications No. 245, Academia Scientiarum Fennica, p. 8, 1990.
- [5] R. Beaugrande and W. Dressler,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Routledge, 1-286, 1981.
- [6] Walter J. Ong, *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Methuen, p. 61, 1982.
- [7] Linda Degh, *Narratives in Society:A Performer-Centered Study of Narration*, FFCcommunications No. 255, Helsinki 7-401, 1995.
- [8] Paul Zumthor, *Oral Poetry:An Instruction, Theory and History of Literature*, Vol 70, Univ. of Minnesota Press, 3-229, 1990.
- [9] David R. Olson and Nancy Torrance eds, *Literacy and Orality*, Cambridge Univ. press, 11-267. 1991.
- [10] Ruth Finnegan, *Literacy and Orality: Studies in the Technology of Communication*, Basil Blackwell, 1-180, 1988.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1061483).